완구회사의 변신… AR·IoT 입혀 캐릭터 콘텐츠社로

코스닥스타를 찾아서

❷ 오로라월드

韓·英·美 완구시장선 '강소기업'
이젠 캐릭터 콘텐츠기업으로 변모
AR기술 도입한 신제품 개발 눈길

'유후와 친구들' 공간은 캐릭터 홍보뿐만 아니라 오로라월드 직원들의 회의 공간으로도 사용된다.

유후와 친구들의 주인공 '유후'는 남아프리카의 멸종위기 동물 갈라고원숭이를 본 떠 만들었다

오로라월드가 '신비아파트'의 캐릭터와 AR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토이 '고스트 볼X' 시리즈를 내놓았다. /배한님 기자

서울 강남구 오로라월드 본사 지하에는 '유후와 친구들'이란 공간이 있다. 귀여운 동물 친구들로 꾸며진 이 공간은 유후와 친구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오로라월드 직원들의 회의 장소로도 사용된다.

'유후와 친구들'은 올해로 12살을 맞는 남아프리카 갈라고원숭이인 '유후'와 사막여우 '패미' 등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물 캐릭터 친구들이다. 처음 다섯으로 시작한 유후와 친구들은 정글, 해변, 극지방 등 전 세계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으로 여행을 다니며 100여 종이 넘는 친구들로 늘었다.

2007년 태어난 유후와 친구들 캐릭터 완구는 지난 12년간 전 세계 시장으로 팔려나갔다. 오로라월드 전략기획&IR 부문 김용언 상무는 스마트패드를 통해 유후와 친구들을 소개했다. 애니메이션, 광고, 제품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유후와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김 상무는 "유후와 친구들 캐릭터가 그동안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8000만개 이상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2009년 2D 애니메이션 첫 방영 이후 70여개 국에 수출했다. 지난 3월부터 이탈리아의 몬도(Mondo)TV와 함께 제작한 3D 애니메이션을 넷플릭스에 공급했다. 전 세계 190개국 아이들이 20여가지 언어로도 유후와 친구들을 만난다.

◆완구 회사에서 캐릭터 콘텐츠 기업으로 변신

'유후와 친구들'을 만든 '오로라월드'는 국내와 영국 완구시장 점유율 1위, 미국 완구 시장 브랜드 인지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지난해 국내 히든챔피언 중소·중견 기업인 '월드클래스 300'에도 선정됐다. 1981년에 설립된 오로라월드는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가 더 높다. 1992년 미국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같은해 홍콩 법인을, 1997년 영국 법인을 세워 세계 시장을 공략했다. 전체 매출의 80% 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한다. 이 중 미주 시장 비중이 55%, 유럽 시장 비중이 20~25%이다. 김 상무는 세계 시장에서 성공 비결을 "해외 사업장의 마켓 리서치, 기획, 세일즈 마케팅은 현지인을 채용해 현지 시장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38년간 쌓은 캐릭터 완구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오로라월드는 완구 회사에서 캐릭터 콘텐츠 기업으로 변모 중이다. 디자인연구 인력만 전직원의 40% 가까이를 차지한다. 매 분기마다 각 해외 법인의 대표들을 모아 '글로벌 PD 미팅'을 진행한다. 여기서 나온 브랜드 콘셉트와 디자인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한다. 이 글로벌 PD 미팅은 벌써 25년이나 이어져왔다.

오로라월드는 캐릭터로 완구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전략인 '원 소스 멀티 유스(OSMU)'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유후와 친구들로 인형, 장난감,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 시장에 팔려나간다. 캐릭터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로열티 판매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키움증권 서혜원 연구원은 "현재 유후와 친구들 라이스(사용권) 판매가 유아용품, 화장품, 완구, 가공식품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2019년 매출액이 5%, 영업이익이 29%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로라 스마트 연구소…AR, IoT 이용한 완구 개발

오로라월드는 최근 스마트 토이 개발에도 공을 들인다. 약 10명의 오로라 스마트 연구소 연구원들이 AR(증강현실)과 IoT(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스마트폰으로 카드를 찍으면 캐릭터가 AR로 튀어나오는 등 단순 작동을 넘어선 형태의 오로라월드의 완구가 판매되고 있다.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면 이를 센서로 감지해 스스로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인형도 있다. 김 상무는 "완구업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 스마트 토이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되는 상품의 85%를 오로라월드 자체 캐릭터로 제작하는 오로라월드지만, 다른 회사와 캐릭터 콜라보레이션(협업)도 진행한다.

최근 초등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신비아파트'는 오로라월드가 CJ ENM과 공동 투자 제작한 것이다. 신비아파트 캐릭터를 이용한 '고스트 볼 X' 시리즈는 1월 말 조기 매진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상어가족'으로 유명한 스마트스터디와도 전략적 제휴를 맺어 ODM(주문자 개발생산) 방식으로 상품을 생산한다.

오로라월드는 토이플러스 오프라인 마켓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인천점까지 문을 열어 국내 11개 매장에서 오로라월드의 라이선싱 상품을 판매한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기술보증기금과 안전보건공단은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보증지원 및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번째부터)안전보건공단 이철우 이사, 기술보증기금 김영춘 이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안전보건公, 中企 '안전경영' 맞손

컨설팅·보증비율 우대·보증료 등 지원

기술보증기금과 안전보건공단이 중소기업들의 '안전경영'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는 안전경영활동을 펼치는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14일 안전보건공단과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보증지원 및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안전공단이 추천한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및 보증비율 우대(100%), 보증료 감면(0.2%p) 등을 통해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ESC상생포럼

공기업-中企 포럼 개최

(사)ESC상생포럼과 ESC경영원은 오는 17일 제11회 '공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포럼'을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별강연을 하고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가 중소기업을위한 상생협력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상생포럼은 공기업·중소기업간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배한님 기자

현대·기아車 협력사 기술협력 희망 '벤처' 모집

벤처기업협회, 협력 부품사 혁신 나서
연구·개발 협업부터 완성차 적용까지

벤처기업협회는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와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벤처·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기아차와 함께하는 이 사업은 협력 부품사의 혁신을 통해 이동수단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완성차 부품시장 진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유기술을 활용한 협업모델을 제안하게 된다.

1차 협력사는 검토를 거쳐 공동연구 및 개발 등의 협업을 진행하고, 이후 우수 협력성과물에 대해 현대·기아차에게 제안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제안된 성과물을 놓고 완성차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한다.

벤처협회는 사업신청에서부터 협상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운영하며 진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협회, 1차 협력사, 벤처·스타트업간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해 참여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협회 홈페이지의 사업공고란에서 '사전 정보제공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LH, 월세·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 직접 찾아 나선다

LH(사장 변창흠)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4%로, 1인 가구는 월 75만1084원이며, 2인 가구 127만8872원, 3인 가구 165만4414원, 4인 202만9956원, 5인 가구 240만5498원, 6인 가구 278만1039원이다.

이때 수급자 및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한다. 단,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한 경로당을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경남 지역의 경우 4급지 그 외지역 기준 1인 월 14만7000원, 2인 16만1000원, 3인 19만4000원, 4인 22만원, 5인 22만9000원, 6인 26만7000원이다. /이경화 기자 7470002@